

(주) 서울하인즈
이영수
이사

지난 94년 11월 3일, 제과기술인들을 위한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대한제과협회가 주최하고 (주)하인즈가 주관한 제1회 하인즈 빵·과자 경연대회가 그것이다. 국내 최초로 치뤄진 실연대회라는 점과 상금액수면에서 세인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행사였다.

이 대회에서 서로의 기량을 뽐내며 총 6개 부문에서 59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 기술자'의 명함을 등재하게 됐다.

그후 7개월이 지난 지금, 등재된 '명함'을 하나로 꿰는 끈이 만들어진다. 그 끈의 이름은 'HEIBAC친목회'로 명명됐다. 친목회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하인즈의 이영수 이사를 만났다. 그는 유지영업을 일선에서 지휘하고 있어 제과인들에게는 친숙한 얼굴이다.

HEIBAC 친목회 결성의 동기는?

HEIBAC 수상자 상호간의 친목 및 기술교류를 통해 제과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하이박을 더욱 완성도 높은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연을 듣고자 이 모임을 주선하게 되었다.

하인즈는 옵서버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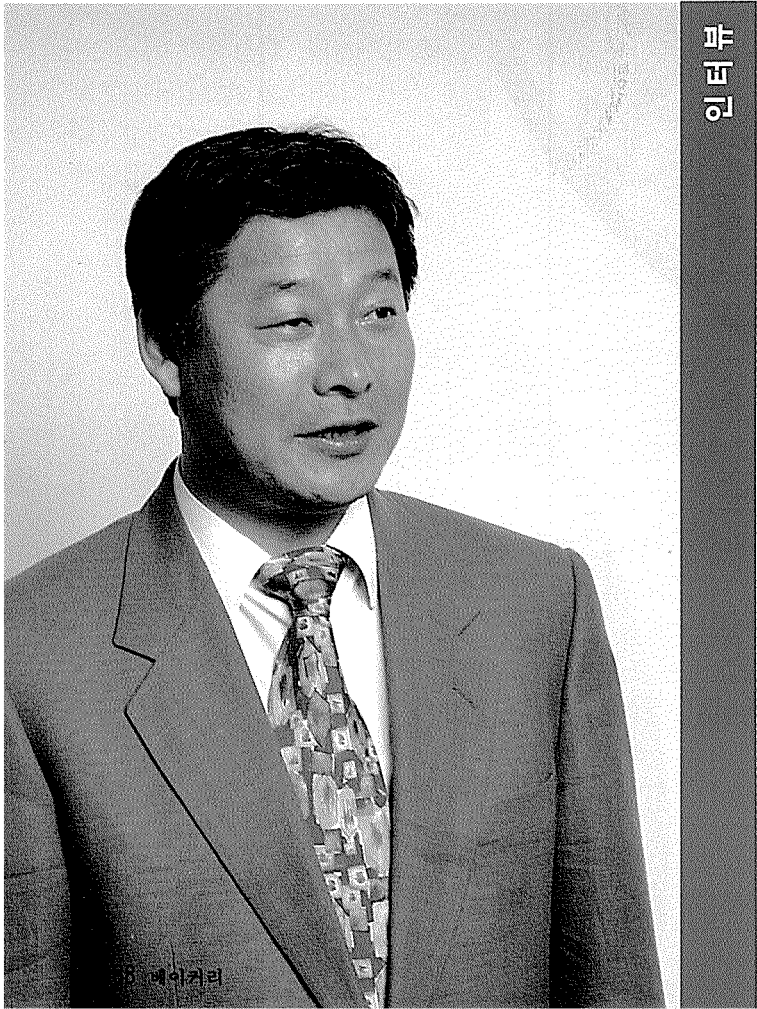
정기총회 및 모임 그리고 특별한 행사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밖에 제반사항을 협조한다.

친목회 조직 및 운영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회장은 1인을 두고 밑에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프랜차이즈 등 7개 지부를 두며 회장과 지부장 밑에는 총무를 1인씩 둔다. 하이박 심사위원과 협회 관계자는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고 격월이나 분기별로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은 기술세미나와 분임토의로 진행된다. 6월 중에 정식으로 창립 결성대회를 갖고 이 때 임원을 선출하고 세부

"단지 행사를 개최하고 상만 주는 '일회성'을 우리는 경계한다. 이 모임을 통해 우수기술인의 기술이 축적된다면 제과업계의 기술향상은 물론 하이박의 취지에도 부합되리라 본다."

'HEIBAC 친목회'는 제과기술 발전에 기여할 터



파
인
터
뷰

적인 운영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과기회, 과자회, 한울회, 거목회 등 기존 친목모임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

우선 하이박 수상자들로 회원자격을 한정했다. 이들에게는 회사 행사나 신제품 세미나에 우선하여 초청하는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각 지부별로 개최하는 기술세미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술인들의 친목회가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배타적인 일면도 있다. 하이박 친목회도 자칫 배타적인 모습 탓에 다른 기술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을텐데...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단지 행사를 개최하고 상만 주는 '일회성'을 우리는 경계한다. 이 모임을 통해 우수기술인의 기술이 축적되고 발전한다면 제과업계의 기술 향상은 물론 하이박 행사의 취지에도 부합되리라 본다.

영업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결코 영업적인 측면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제과업계 전체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이 모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4일 개최된 '롯데 삼강 사은의 밤' 행사를 어떻게 보는가?

제과인들의 사기진작과 업계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K]